<2019년 10월 6일 주일말씀>

이상세계

본 문 이사야 43장 19-21절

◎ 인사말은 교역자들이 알아서 할 것!

<말씀 시작>

◆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21절>**이지만,
이후 잠시 시간을 내서
<이사야 43장 전체>를 읽어 보면 좋습니다.

◆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역사>를
기억나게 하며 희망을 주셨습니다.

◆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1차 〈애굽〉에서 〈신광야〉,
2차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때'를 생각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 모세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거기서 성장하며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모세〉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 그런데 〈애굽〉이 작은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대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막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국가에서 가장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애굽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고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도 〈하나님의 새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영도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니,
그 강대한 애굽이 막지 못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주지 않자
하나님은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고,
마지막에 엄청난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때도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벗어나 〈1차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선조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가
이들이 가야 할 '목적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정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핵심>만 읽어 볼까요?

이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우리 섭리역사>도 생각하면서 듣기 바랍니다. (실감나게 읽을 것!)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정녕!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시어 숱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게 하셨고,
결국 <이상세계>를 실현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이 말씀은 비단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시대마다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 그 후로도 하나님은 〈구약 4000년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때마다 해당되는 이상세계〉를 이루며 오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도 없었고,
또 우리가 그 시대를 직접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큰 역사〉만 알 수 있습니다.

◆ **〈가장 큰~ 역사적인 이상세계〉**를 꼽는다면, 구약역사 이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2000년 신약역사〉**입니다.

**〈신약역사〉는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 이상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를 따라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복지로 가는 새 일〉을 시작하시니
〈새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의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시대에 따라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새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 일〉,
곧 〈가나안 복지로 가서 이상세계〉를 이루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종급>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받고
<신약 자녀급 구원역사, 이상세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이제 <2000년 자녀급 이상세계>가 끝나니,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명자'를 보내서
<신약에서 약속한 이상세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새 일>이 아니라,
이미 <때를 따라 시작되고 한창 진행 중인 새 일>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요한이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대로,
<사랑의 신부역사, 1000년 혼인 잔치 역사>입니다.

선조들이, 온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입니다.

◆ **모세 때처럼, 예수님 때처럼,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하나님은 '사명자'를 통해 '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새 일>을 행하며 <이상세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모세 때도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만
<가나안 복지, 이상세계 새 역사>를 이루고 알고 갔듯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만
<자녀급 구원의 이상세계, 새 역사>를 이루고 알고 갔듯이,
이 시대도
<사명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새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만
<신부급 이상세계, 혼인 잔치 새 일>을 이루고 알고 갑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 이상세계>는 '혼자서'는 못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야 하고,
그다음에는 이리와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소와 곰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들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한 종류의 돌, 한 종류의 나무만 가지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와 크기의 돌과 나무들을 가지고 건축하니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세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성을 발휘하며 함께해야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이상세계 역사>를 펼 수 있습니다.

◆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일, 섭리역사>는
41년 동안 역사를 펼쳐 오면서,
그때마다 '이상세계 역사'를 펴 왔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 전반기 역사를 21년 동안 해 오면서도
- 성전도 준비되지 않았고,
-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의 수준도 미흡했고,
- 생명의 역사도 미약했고,
- 각종 행사도 지금에 비하면 미약했지만
그때마다 해당되는 개발의 역사,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와 함께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하나님의 새 일, 이상세계 역사>를 펴 왔습니다.

◆ 전반기 역사 이후,
섭리역사는 극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때도 나름대로 <이상세계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의 핵심>인 '말씀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되면서,
그 어려운 중에 전도하여 '지도자들'을 키웠고
그때 '복직된 하와, 성령의 상징체'도 키웠습니다.

◆ 그 후 <10년의 조건 기간>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더 극한 혼인 잔치, 이상세계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진행됐고,

〈각종 순회, 집회, 체육행사, 각종 행사〉 등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혼인 잔치 이상세계 역사〉를 펴 나가셨습니다.

◆ 그 역사는 지금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생명들〉을 불러와서
매일 〈이상세계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 이벤트 역사, 음악과 예술의 역사, 운동의 역사 등
갖가지 역사가 자연성전을 중심해서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 각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 주시는 생명들〉을 가르치며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혼인 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성의 생명들〉이 모여들어,
〈주〉와 함께, 〈먼저 온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 일, 이상세계〉를 이루며 가고 있습니다. <끝>

◆ 〈가장 큰 희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온 인류가 기다렸던 자〉를 만났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 를 쓰고
〈이 시대에 원하시는 역사〉를 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역사에 온 것입니다!

◆ **이사야 43장 말씀같이,**
지금도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 가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모여든다고,
하나님은 절대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 역사가 가면 갈수록, <이상세계>가 더 크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각자 개성체들>이 행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며
<이상세계>가 더욱 완성됩니다.

◆ <구약 4000년>은 '월, 화, 수, 목요일 같은 역사' 이고,
<신약 2000년>은 '금, 토요일 같은 역사' 이고,
<성약 1000년 섭리역사>는 '일요일 같은 역사' 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이루는,
<1000년 혼인 잔치 이상세계 역사>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행할수록
<시대 혼인 잔치 역사>도 '더 크게' 하게 됩니다.

작게 행하고, 자꾸 역사의 가치를 상실하면
작은 대로밖에 못 합니다.

계속해서 '생명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들은 <구시대 말씀>으로 굳어져서,
또 <세상의 관념>으로 굳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가 온 줄 모릅니다.

데리고 와서 말을 해 줘야 압니다.
우리가 '증인' 입니다. <증인>이 말을 해 줘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새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 〈혼인 잔치 역사〉입니다.
어느 한 날뿐 아니라, '매일 그날그날 혼인 잔치 역사' 입니다.

〈매일 그날그날 혼인 잔치〉를 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신랑' 으로 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랑' 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이때 주시는 새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고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랑으로 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제일 아끼고 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 **〈사랑〉 없이는 '혼인 잔치 역사' 를 못 합니다.**
〈절대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제일 아끼고 위하고 좋아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새 일, 혼인 잔치 역사〉를
아끼고 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사랑 일체' 되어
〈사랑〉이 '음식' 이 되고 '희락' 이 되어
〈더 이상적인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 해 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가 <시대 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밤낮으로 <혼인 잔치의 삶>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때 '각자 회개할 것, 못 하는 것, 더 잘해야 할 것'
확실하게, 화끈하게, 불같이 전해 주면서 마무리!!

자신 없거나, 증거에 모순이 있는 말이라면 하지 말 것!

◆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구시대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이 시대가 돼서도 10년,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지난날 <섭리사 십자가 기간>에도
나름대로 '혼인 잔치 이상세계 역사' 를 이루며 왔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때는 아쉬움이 많았고,
100%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이 오면, 미련 없이 살아야지!'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도 <성령>을 부르며,
오직 <주의 말씀>을 뇌 속에 넣고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그때' 입니다!

◆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는 대로 밖에' 못 합니다.**

<이 시대 이상세계, 하나님의 새 일>도
깨닫게 해 줘야 함께하게 되니,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을 데려와서 그들도 깨우쳐 주고
그들도 '삼위의 신부'가 되게 해 줘야 됩니다.

◎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2>

◆ **지금, 하나님은**
<자연성전>에 돌도, 나무도, 각종 것들도 다 모여들게 하여
<자연성전>을 빛내게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각종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이상세계>가 더욱 빛납니다.

◆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시며,**
매일 <1000년 혼인 잔치 이상세계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참여하는 사람>만 압니다.
<구경꾼>은 기쁨도, 희망도 덜합니다.

<성삼위와 주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들>만
더욱 빛나며 '기쁨과 희망'으로 행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새 일, 새 역사>이니,
흔들림 없이! 의심 없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끝>

◎ 못다 한 말씀은 수요일에 선생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